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시행 4년...교통 현장 ‘유명무실’

배려문화 확산으로 교통사고 예방
2023년 7월 법 개정 통해 도입돼
홍보·배부 저조에 실효성 지적 등
경찰 “향후 추가 제작·배부 검토”



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라서 보급 규모와 방식은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손해보험협회의 지원을 받아 총 9천500매를 제작, 본청 사용분을 제외한 약 6천500매를 각 지방청 등에 배부했다. 광주경찰청에는 지역 고령인구 비율 등을 감안해 160매가 배정됐다. 그러나 배부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상시 배부 체계도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실제로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는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개별 요청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배부

되고 있어 도로에서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집계 결과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 관련 교통사고는 2천 137건으로, 매월 120여건 이상 발생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3천110명이 다치는 등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구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 A(72)씨는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를 뉴스에서 얼핏 본 것은 같다. 차량에 부착하면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어디서 어

떻게 받는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보급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운전자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인식이 낮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급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넉넉하게 제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추가 제작과 배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찬용 기자

광주 지역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르신 운전자 표지(일명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사진)’ 부착시행이 4년째를 맞았지만, 홍보·배부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르신 운

전자 표지 부착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19일 앞둔 지난 28일 진도 임회면 한 도로에서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이 팽목항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선체 이동·전시 계획 공개 ‘촉각’

해수부 자료조사 용역 막바지
2028년 이동·2030년 사업 완료
내일 오후 2시 목포서 설명회

그 위에 거처되고 영구 보존될 예정이다. 매립지에 거처된 세월호는 격납고와 같은 대형 건물 안에 보존되며 선체를 둘러싼 대형 건물이 지어진다. 이는 장기간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할 때 격납고 안에 보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사 이후 3년간 수중에 있다가 인양 후 수년간 비바람을 맞아 부식된 선체 수리는 조선소 등으로 보내지 않고 거처한 장소에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보존된 세월호에는 방문객들이 내·외부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리 형태의 관람로가 조성된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발생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을 기록과 영상, 상징품 등으로 보여

주는 4·16 생명기억관과 해양안전교육이 이뤄지는 생명체험관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건축물 배치 계획과 건축물 디자인, 내부 활용방안, 콘텐츠 전시와 체험 등을 위한 공간 연출 방향 등도 기초 자료조사 용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오는 9월까지 기초 자료조사 용역이 끝난 후에는 발주 절차를 거치고 부지매립이 진행된다. 이에 따른 세월호 선체 이동 시점은 2028년, 전체 사업 완료 시점은 2030년으로 점쳐진다. 한편 31일 설명회는 오후 2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별동 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와 목포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와 4·16 재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안재영 기자

오는 31일 목포시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앞두고 관련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2024년부터 시작된 선체 이전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 용역이 2년여 만에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 용역을 통해 해수부는 선체를 이동시킬 최적의 경로를 찾았다. 이동 지역은 현재 목포 신항에서 약 2km 떨어진 고하도 앞바다로 매립 후

숙박업소 가장 성매매 영업 ‘철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일반 투숙객 대상 미영업 ‘치밀’

해당 모델은 일반 투숙객을 받지 않고 태국인 여성들을 상주시키며 성매매 전용 업소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태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신분이었다고 드러났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과 A씨를 연결해줬다는 또다른 태국인 여성 B씨 등에 대해서도 앞선 혐의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여성을 불법 성매매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사지·유형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숙박업소를 가장 성매매 영업이 이어온 업주와 성매매수자 등이 적발됐다.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북구 소재 한 모텔에 대해 북부경찰서와 함께한 합동 단속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와 성매매수자 1명, 성매매를 한 태국 국적 여성 7명을 붙잡았다. A씨는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매수자를 모집하고 1인당 8만~24만원의 화대를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檢, 마약 밀수입 베트남 불체자 구속기소

필로폰·엑스터시 등 1kg ↑

서 유통된 정황까지 확인돼, 광주지검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재영 기자

국내로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1kg 넘게 들여온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관련법을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필로폰 약 800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검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신속히 A씨를 특정해서 검거했고 그가 수차례에 걸쳐 총 1kg이 넘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밀수입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 중 일부는 국내에

업주 협박·음주운전 50대 2심도 실행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인 업주를 협박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목포 호안에서 술집 업주 B(40대)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들고 와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재영 기자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